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교리 상식

- 미사 참여는 최소한 복음 봉독 이전에 입장합니다.
복음 봉독 이후에 미사 참석시 영성체를 삼가합니다.

● 알 림

- 오늘은 헌미헌금 2차봉헌이 있습니다.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약)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9/7)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없습니다.
- 9월16일(목)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예정)
- 다음 주일(9/13)은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성당출입 발열검사 봉사자 모집 *

- 시 간 : 평일 미사(월요일 ~ 토요일 새벽미사)
- 하실일 : 성전 입구에서 평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들의 발열검사와 출입기록 도와주기
- 대 상 : 65세 미만의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으신 분
- *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10/01(목)

추석미사	06:30, 12:00 (저녁7시 미사 없음)	합동 분향
------	------------------------------	-------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9/13(일)**부터 미리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친교의 음식 나눔은 없습니다.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9월06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9월13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9월20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9월27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일 (9/1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26일 ~ 9월01일)

· 교 무 금		6,790,000 원
· 주일헌금		2,898,000 원
· 오라토리오 2차헌금		879,000 원
· 감사헌금	이창남20만원 이석환 3만원 익 명10만원 이승문 5만원 김시아 5천원 박정천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9/06	황원선	오성환 김영균 신종구 김진수	최승일 손정주
9/13	최경희	조홍환 서윤석 도현만 최상림	장익근 한희숙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9/06	최승일 박형순	김영배 김인기 박승환	최석준 최창열	없음		
9/13	오광운 박용환	박형순 손상민 오광운	최상남 최승일	없음		

● 주보 7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318.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을 시대정신에 맞춰 변경할 수 있나요?

신앙의 진리는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찬반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합니다. 교회는 결코 신경credo를 고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의 수나 내용도 변경하지 않고 십계명을 확장하거나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례와 기도의 본래 모습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느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표’를 신중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인식은 교회의 신앙론을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만, 신앙의 분투를 통해 얻은 교회의 확실한 인식인 교의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교리를 통해 교회는 자신의 탁월한 도구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보다 더 잘 적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19. 어떤 정치 정당의 입장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면, 우리는 약자들과 연대하는 도구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사회의 보조적인 구조들을 숙고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강령은 종종 불편한 입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대일로 따르는 정당이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신앙과 어울리는 입장을 강화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한 조건은 인간 존엄성, 인권과 생명 보호, 국가의 헌법에 근거를 두는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법률상 지위 등에 대한 정당의 원칙적인 지지입니다. 폭력을 주창하거나 사회 증오, 선동 정치, 인종 차별이나 계급투쟁을 지지하는 정당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20. 우리는 비그리스도교적인 연합, 단체와 기구에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갇힌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축구 선수가 소속된 팀에서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고 알리면, 이는 멋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조합원이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참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소명에 반하는 것(만취, 상해, 방탕한 성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앙의 표현이 방해받아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가 이념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보이는 사회적 목적이라도 그리스도교적인 것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념적 관심사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그리스도교 세력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 듭니다.

321. 우리의 신앙과 일치할 수 없는 직업이나 특정 단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인간상과 교회의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명확하게 모순되는 분야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직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낙태 시술이나 안락사 시키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춘, 포주, 포르노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인신 매매, 인간을 협박하고 모욕하고 해치는 음모 등에 간접적으로도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고객을 기만한 상품을 판매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언론인들은 대중 매체를 만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직업, 경제, 정치의 측면에서 범죄 조직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부당한 체제에도 협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조를 파괴하거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 질병을 야기하는 노동 조건, 어린이 노동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하고,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하고, 하느님의 정신보다 수익을 더 추구하는 기업에도 협력하지 않아야 합니다.